

막내 윤도현 씩씩한 타격, 선배들의 탄성 부르다

KIA 함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캠프 참가 야수 중 유일한 신인 김하성 닮은 폼으로 매서운 타격 홈런·도루 '30-30' 꿈의 목표 "선배들의 야구 열정에 놀라요"

'김하성 바라기' 윤도현의 씩씩한 타격이 선배들의 탄성을 부르고 있다.

KIA 타이거즈 함평 스프링캠프 야수진 '막내'는 광주일보 출신의 내야수 윤도현이다.

함평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도영의 캠프 참가가 늦어지면서 윤도현은 야수 유일 신인이다.

최지민, 김찬민, 강병우 등 세 명의 신인 투수가 있지만 야수진의 '나홀로 신인'이라 캠프 초반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윤도현은 "함평에서 도영이가 항상 옆에 있었는데 야수 혼자니까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다. 투수 동기들에게 쉬는 시간마다 전화했다가 혼나기도 했다(웃음)"며 "처음에는 선배님들하고 안 친하고 하니까 야구 집중도 힘들었는데 다들 잘 챙겨주셔서 적응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적응은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선배들이 신기한 막내다. TV에서 보던 선배들과 함께 훈련한다는 사실이 꿈처럼 느껴진다.

윤도현은 "TV에서 보던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고



윤도현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김)선배 선배님하고 케 차분 하는데 하나 던질 때마다 이게 맞나 싶기도 하다(웃음)"며 "스프링캠프 끝날 때에는 선배님들의 장전 하나씩 배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배들을 보면서 놀라는 점은 또 하나 있다. 야구에 대한 열정이다.

윤도현은 "학생 때와 다르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다들 너무 진지하게 하고 야구 열정이 넘친다. 고등학교 때는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내 장점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하신다. 더욱 분발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첫 수비 라운딩 시간도 윤도현에게는 충격 아닌 충격이었다.

윤도현은 "평고할 때 라운딩을 하는데 학생 때는 중간에 계속 끊겼다. 못 던지고 못 잡고 하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한 번에 다 끝난다. 고등학교 때와는 차원이 다르니까 집중하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인 윤도현이지만 선배들도 '막내'를 보면서 놀란다.

류지혁은 "요즘 후배들 야구 잘한다. 윤도현 처음 타격하는 것을 보니까 김하성(샌디에이고)과 매커니즘이 비슷했다. 쉽게 따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폼으로 잘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김하성과 꼭 닮은 폼으로 매섭게 공을 날리면서 윤도현은 선배들은 물론 코칭스태프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윤도현은 어렸을 때부터 김하성의 타격폼을 보고 또 보면서 '윤도현의 것'을 만들었다.

윤도현은 "어렸을 때부터 짝어 치거나, 자세를 낮춰서 치라는 지도를 많이 받았는데 서서 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어렸을 때 그렇게 치는 사람이 없었는데 TV에서 김하성 선수가 그런 특이 폼으로 쳤다. 코치님한테 이 폼으로 해보고 싶다고 허락을 받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바꿨다"며 "시합 때는 불안해서 원래 폼으로 치기도 했는데 연습 많이 해서 내 폼이 됐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부터 제대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 타석에 들어가면 투수가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포스가 있어야 한다. 뭔가 TV에서 김하성 선수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따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폼 뿐만 아니라 김하성의 야구도 닮고 싶은 게 윤도현의 바람이다. 언젠가 '30-30'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게 그의 꿈이다.

윤도현은 "발도 빠르면서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게 내 장점이다. 김하성 선수가 홈런도 치면서 도루까지 많이 하니까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된 것 같다. 프로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변화구 대처 능력을 많이 키워야 한다"며 "지금 목표는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워서 1군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미래를 보면 홈런과 도루를 가장 많이 중요시 하기 때문에 '30-30' 이런 걸 꼭 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윤준현

'첫 1군 캠프' 윤준현 선발 경쟁 가세

"2년차 징크스 없게 실력으로 증명"...올 성장 키워드는 웨이트와 커브

KIA 타이거즈의 선발 경쟁에 윤준현도 가세했다.

윤준현은 14일 함평 웰린저스필드에서 첫 라이브 피칭을 하면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최고 136km의 직구를 던진 윤준현은 "너무 급하게 안 하려고 천천히 한다는 생각으로 캠프에 들어갔다. 그래도 생각한 것만큼 몸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팀의 마운드 위기에서 선발로도 좋은 활약을 하며 5승을 수확했지만, 대졸 5년 차 윤준현에게 1군 캠프는 이번이 처음이다.

윤준현은 "처음으로 1군 캠프에 와서 하고 있다.

지난해 1군에서 많은 선수들하고 지냈기 때문에 떨리거나 그런 것은 없고, 더 편하게 캠프에 임할 수 있는 것 같다. 지금은 '1군 캠프' 이런 느낌보다는 저를 위해서 목표를 찾아서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윤준현이 찾는 목표는 '더 발전된 2022시즌'이다. 지난해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깜짝 활약을 하며 윌리엄스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은 윤준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1군 데뷔, 첫 승 등 많은 것을 이뤘다.

윤준현은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내 목표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볼 스피

드, 변화구 등 보완할 점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트와 커브가 올 시즌 성장을 위한 키워드다. 윤준현은 "트레이너님들과 웨이트, 트레이닝 쪽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힘이 붙은 게 느껴진다. 처음에 밸런스가 깨졌는데 서재용 코치님 등이 투구폼 같은 것 잡아주셔서 감이 잡혔다"며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되는 데 내 커브 각이 크니까 커브 제구력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무명'이었던 지난해와는 다른 위치에서 캠프를 시작했지만, 윤준현에게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

고 있다. 두터워진 마운드에서 윤준현은 자리싸움을 해야 한다.

윤준현은 "주위에서 2년 차 징크스라는 말을 하는데 '무조건 잘하자. 무조건 잘 해야겠다'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내 자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 자리에서든 실력으로 증명하면 선발이든 통릴리프트든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물론 지난 시즌 경험이 있는 만큼 '선발'이 윤준현의 마음 한 곳에 있다.

윤준현은 "아무래도 마음 한쪽에는 선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가능하다. 그 자리에 가기 전이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다"며 "끝까지 안 다치고 캠프를 끝내는 게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는 개막 엔트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올 시즌 많은 이닝을 던지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장애인 바이애슬론, 동계체전 사상 첫 금

김민영 4.5km·7.5km 2관왕 휠체어 컬링서도 값진 은메달

광주 김세정 바이애슬론 은메달

전남 장애인 바이애슬론이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은 13~14일 강원도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남자(시각)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km와 바이애슬론 7.5km(31분14초07) 경기에서 김민영(23·우석대, 가이드 김철영)이 각각 14분 58초40, 31분14초07의 기록으로 전남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김민영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국가대표 상비군 김민영은 15일 남자(시각) 크로스컨트리스키 3km 클래식, 16일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6km 프리 경기에 출전해 대회 4관왕에 도전한다.

전남은 휠체어 컬링에서도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지난 10~12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컬링에서 전남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준우승은 전남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컬링 종목에서 19년 만에 일궈낸 최고 성적이다.

정승원(스킵)은 "전남에 컬링경기장이 없어 타 지역에서 훈련했지만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전용 컬

링장에서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빙상 종목에서는 유승협이 남자 IDD 500m, 정아정이 여자 IDD 500m에서 각각 은메달을 보냈다.

광주선수단은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전남 동메달을 따냈던 김세정은 14일 열린 여자 좌식 바이애슬론 중거리(7.5km)에서 46분40초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 후보였던 빙상 여자 1,000m 김진영은 타 시도 선수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빙상 전 종목의 경기가 중단되면서 은메달 1개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황의조 10호골...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0·보르도)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에서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돌파했다.

황의조는 14일(한국시간) 프랑스 리그의 볼라르-틀르리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1-2022 프랑스 리그 24라운드 원정 경기에 보르도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 팀이 1-3으로 뒤지던 후반 8분 만회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 황의조의 10번째 골이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0골을 기록했다.

일본 J리그 갑부 오사카에서 활약하다 2019년 7월 보르도 유니폼을 입고 유럽에 진출한 황의조는 첫 시즌 6골을 기록했고, 2020-2021시즌 12골을 넣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돌파한 데 이어 두 시즌 연속 10골을 달성했다.

황의조는 지난달 23일 스트라스부르와의 22라운드에서 프랑스 무대 첫 헤트트릭을 폭발한 뒤 두 경기 만에 득점포를 다시 가동하며 시즌 10골을 채웠다.

스트라스부르전 헤트트릭으로 리그 통산 27골을 기록, 박주영(37·울산)이 갖고 있던 리그 아시아 국적 선수 최다 득점 기록(25골)을 경신했던 황의조는 통산 득점을 28골로 늘렸다.

아직 이번 시즌이 14경기 남아있어 황의조는 지난 시즌의 12골을 넘는 한 시즌 개인 최다 득점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

하지만 팀은 리그에 2-3으로 쳐 최하위인 20위(승점 20)에 머물렀다. 보르도는 최근 2연패를 포함해 6경기에서 1승 5패의 부진을 겪으며 강등권을 헤매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해적: 도깨비 깃발
2관	해적: 도깨비 깃발, 쌍2계더
3관	킹메이커
4관	나일 강의 죽음
5관	해적: 도깨비 깃발, 355
6관	나일 강의 죽음
9관	나일 강의 죽음, 킹메이커
7관	새네케틀
8관	새네케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시즌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2.03.25.(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